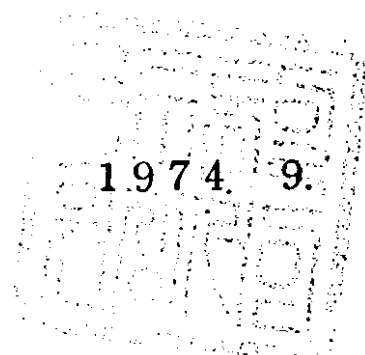


中共現況分析

(進路展望)



國土統一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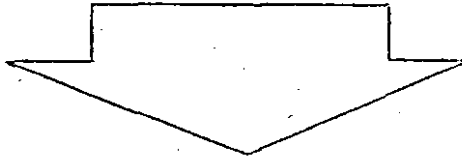
中 共 現 況 分 析

1. 中共과의 關係.....	4
2. 中共의 概觀.....	6
3. 中共의 變遷過程.....	12
4. 中共의 現實.....	28
5. 影響判斷.....	44

보고할 順序는 먼저 中共과 韓國과의 關係, 中共을
概觀하고, 그 交選過程을 살핀 다음에 中共의 現實을
진단한후, 끝으로 이같은 中共이 有關國에 미칠 수
있는 影響을 判斷하는 順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1. 中共과의 關係 - 重要性

政治的	北韓同盟國
軍事的	休戰協定署名國
國際的	UN 安保理事國
歷史的	隣國關係 (20 世紀初까지)
地理的	隣接國家 (核保有國)



韓國統一安保에 至大한 影響力

1. 中共과의 關係 - 重要性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中國과 韓國은 20世紀初까지 歴史的으로 唇齒關係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歴代 中國人들은 中國을 이 (齒)로 간주하는 한편, 韓半島를 이 를 보호하는 입술 (脣)에 비유하여 왔던 것 입니다.

오늘의 中共은 北韓과의 同盟國이며, 軍事的으로는 休戰協定の 署名國으로서, 韓半島의 軍事情勢에 利害關係를 가진 當事者이기도 합니다. 또한 國際的으로는 UN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며 우리와는 地理的으로 인접해 있는 核을 保有한 強大國 입니다.

따라서 中共은 韓國의 統一과 安全保障에 지대한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2. 中共의 概觀



	規 模	比 較
人 口	8 億 3,000 萬	○ 美·蘇 - 4 倍 ○ 韓 國 - 25 倍
領 土	959 萬 km ²	○ 世 界 - 3 位 ○ 韓 國 - 100 倍
資 源	石 油 : 90 億 屯	○ 世 界 3 位
(埋 藏 量)	鐵 鈹 石 : 250 億 屯	○ 世 界 3 位
軍 事 力	總 兵 力 : 310 萬 名	○ 世 界 3 位
	核 實 驗 : 16 回	○ 世 界 3 位
對 外 援 助	6 億 弗 (第 3 世 界 領 導)	世 界 3 位

2 . 中 共 의 概 觀

가 . 外 觀

오늘의 中共을 살펴보면 두가지 側面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때 中共은 強大國으로서의 外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内部 實情을 들여다 보면 開發途上國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人口가 8億 3千萬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소련의 4배나 되고, 이것은 韓國(南韓)의 25배에 해당합니다.

領土에 있어서도 韓國의 100배로 世界의 제 3位 國家입니다. 資源面에서도 石油가 90億屯, 철광석 250億屯으로 각각 世界의 세 번째가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軍事力에 있어서도 正規兵力이 310萬이며 특히 核實驗을 16회에 걸쳐 행한 제 3위의 核保有 強大國이라는 사실 否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70年代에 들어서서는 對外援助에 있어서도 第3世界를 상대로 이들을 主導한다는 명분하에 6億弗 相當의 援助를 매년 해오고 있으며, 核開發을 위해 年間 10億弗 以上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内部實情

	內 容	比 較
1人當GNP	156弗('72)	('72年) ○韓國：303弗
經濟成長率	'60년대~1.7% '70년대~6.0%	('60년대) ○韓國：10%
人口成長率	2.2% (年 1,600萬 增加)	○韓國：1.7%
貿易量	輸 出 37億 5,000萬弗 輸 入 39億 總 額 76億 5,000萬弗	○韓國：75億 7,000萬\$
國內情勢	政權에 對한 不安要素內包 (黨·政軍分裂) ○ 理念과 現實 對立 理念置重→ 近代化 中斷 現實置重→ 共產化 不振	○韓國：安定 維持

- 中共의 問題는 内部 實情에 存在
- 全般的으로 開發途上國 水準
- 近代化의 課題 莫重

나. 內 部 實 情

그러나 中共의 內部 實情을 들여다 보면 外觀과는 判異한 要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人當 GNP는 156弗(1972)로 한국의 303弗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經濟成長率에 있어서도 60年代는 年間 1.7%라는 침체된 상태에 머물렀었고, 70年代에 對外開放路線을 표방함으로써 겨우 年間 6%의 成長率을 보이지만, 이것도 한국의 10%에 비해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貿易量에 있어서도 약 76억 5천만弗(1973)로 우리 韓國의 75億 7천만弗과 對等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領土가 우리의 100배이고 人口가 25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中共의 實情을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對內 實情을 살펴볼 때 政權 成立 以來 계속적으로 政權에 對한 不安要素가 지속되어 왔고 黨과 政府, 軍部間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잇따른 權力鬭爭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中共이 안고 있는 苦惱는 理念과 現實과의 괴리에 있는 것입니다. 共產化를 위한 理念鬭爭의 強化는 近代化를 後退시키는 結果를 가져 오고, 現實的인 政策을 밀고 나가게 되면 近代化는

推進되나 共產化가 不振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지난 25年間の 中共의 발자취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一連의 상황을 감안해 볼때 대체로 오늘날 中共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는 強大國의 位置를 가진 外觀 보다는 實質的으로 内部 實情에 있고 全般的으로 中共의 實情은 開發途上國의 水準에 머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中共은 中共 自身の 近代化라는 막중한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 엄연한 現實인 것입니다.

3. 中共의 變遷過程

가. 政權樹立以前

1921	○ 中國共產黨 創設
1923	(1) 多角的 心理戰 驅使 (2次合作・7次協商) ○ 談談打打 (劣勢) ○ 打打談談 (對等) ○ 打打談談 (優勢)
1949	(2) 民心掌握 (傳統中國思想) ○ 蔣介石 → 逆天君主化 ○ 毛澤東 → 順天君主化

○ 中國大陸 共產化 成功

執權層 (共產主義勝利)

> 意識差異存在

被支配層 (順天君主出現)

3. 中共의 變遷過程

가. 政權樹立 以前

그러면 中國共産黨이 成立된 후 50여년 동안 中共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中國에서 共產革命이 成功된데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作用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는 中國의 傳統思想을 교묘히 活用한 毛澤東의 心理戰을 기인한 다고들 할 수 있겠습니다.

中共黨은 1921년에 창설되어 1949年 大陸을 석권하기 시기 까지 오랜 기간을 통해 蔣介石 總統이 이끄는 國民政府와의 鬭爭過程에서 다각적인 心理戰을 展開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毛澤東은 政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國民黨과 두차례에 걸친 合作과 7차례에 걸친 協商을 展開했습니다. 이 展開過程에서 共産黨의 힘이 劣勢일 때는 談談打打로 임해 협상을 부르짖으며 攻擧를 음계 하고, 힘이 敵과 對等할 때는 辺打辺談의 戰術을 活用, 한번 攻擧하고 한번 協商하는 자세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敵의 힘보다 強할 때는 打打談談으로 攻擧위주로 임하며, 攻擧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協商을 活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民心을 유도하는 手段으로 中國 固有의 傳統思想인 天命思想을 교묘히 活用하였던 것입니다. 예컨대 蔣介石 總統을 하늘에 거역하는 逆天君主로 규탄하고, 毛澤東을 하늘에 順應하는

이른바 順天君主로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國의 傳統的인 思想인 逆天君主는 망하고 順天君主는 興한다는 革命思想을 毛澤東이 共產革命의 心理戰法으로 개발함으로써 民心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中國의 共產化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中共黨의 指導層은 中共革命의 成功이 共產主義 運動의 승리라고 主張하였으나 被支配層인 中國 大衆은 그들이 共產主義를 지지하여 毛澤東에게 政權을 맡겼다가 보다는 長期戰爭 과정과세, 부정부패등의 책임을 蔣介石總統에게 돌려 그를 逆天君主로 규탄하는 반면 土地改革을 부르짖던 毛澤東을 順天君主로 규정, 그를 지지했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執權層과 被支配層 間에는 意識差異가 存在하게 되고 政權樹立 당초부터 이를 안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注目할 필요가 있습니다.

中.政 權 樹 立 以 後

交 遷

經 濟

↓ 對 蘇 協 力 期

49~57

- 私有財產
 - 商品市場
- > 維持

- 急速成長
- GNP: 910 億弗 (58)

自

58~60

- 三面紅旗路線採択
(大躍進, 人民公社, 社會主義總路線)

- 7年後退
- GNP: 690 億弗 ('61)

力

61~65

更

劉少奇時代

- 人民公社 緩和
- 大躍進 中止

- 沈滯克服
- GNP: 1,040 億弗 ('66)

生

期

66~69

文化大革命

- 劉少奇去勢
- 對蘇關係惡化
- 舊勢力打倒

- 3年後退
- GNP: 970 億弗 ('68)

↑ 開 放 期

70 以後

- 自力更生 (閉鎖路線) 拋棄
- 對西歐 開放

經濟安定化傾向

※ 資料: 美國商務省

나. 政 權 樹 立 以 後

다음으로 政權이 成立된 이후 中共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政權이 성립된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中共을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中共과 소련이 協力하던 中.소 協力期와 中.소關係가 惡化된 이후 소련과의 協力關係가 단절되고, 또한 東西冷戰이 惡化된 가운데 美國의 對中共封鎖政策으로 因해 中共이 소련이나 西方으로부터 一切의 資本技術을 도입하지 않고 獨自的으로 社會主義의 建設을 추진해 나가던 이른바 自力更生期, 그 이후 自力更生에 의한 中共의 近代化가 거의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인식하여 소련과 계속적인 軍事的인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西方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도입해 가지고 中共의 近代化를 도모하려는 開放期等의 3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소협력기에 있어서는 中共의 共產化政策은 대체로 온건한 立場을 취했던 것입니다.

온건한 改革을 통해 土地와 企業의 共有化를 실현하면서 部分的으로 私有財産도 인정하고 商品市場도 유지하면서 소련의 資本과 技術援助로 現代式 工場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이 期間에 있어서의 經濟는 急速히 成長하여 1952년에 약 520억弗이었던 GNP는 1958년에 이르러서는 약 910억弗로 成長하는 높은 發展樣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가 惡化되고 소련의 지원이 중단된 自力更生期는 대체로 3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958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三面紅旗路線의 채택기와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의 劉少奇 執權時代, 이른바 新經濟政策(New Economic Policy) 도입시기와 그 다음 理念을 강조하는 文化大革命期等 3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中國의 급격한 社會主義化를 工業發展에 의한 中共의 近代化 代身에 人民의 動員에 의한 勞動力으로 해결하려는 生涯에서의 大躍進運動과 中國의 실질적인 家族制度를 붕괴시키고, 集團化시키는 農業에서의 人民公社化運動 및 思想에서의 共產化를 위한 社會主義 總路線等 이른바 三面 紅旗路線을 추구하던 時期에는 住民들이 급격한 改革政策에 반발하고, 또한 國家近代化를 勞動力 勳員으로 해결하려는 努力은 經濟를 침해시켜 中共의 近代化 作業을 부진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1958년에 910억弗을 상회했던 GNP는 1961년에는 다시 690억弗로 下降하여 經濟發展을 약 7년을 퇴보시키는 바 되었습니다.

이결과 三面紅旗運動의 실패를 자인한 毛沢東은 제2선으로 물러나고 國家主席으로 劉少奇가 등장하므로써 自力更生の 第2段階로 접어든 것입니다.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劉少奇는 人民公社를 완화하고, 급격한 改革政策의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理念 보다는 現實을 중시하여 農工併進 政策을 채택, 농업발전과 경공업 건설에 치중한 결과, 침체되었던 경제는 다지금 회복되어 1966년에 1,040

역弗로 GNP가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劉少奇의 現實的인 政策수행은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人民의 生活水準은 개선되었읍니다만, 이같은 政策이 지속될 경우 中共은 共產化보다는 오히려 旧中國으로 復元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毛澤東은 劉少奇를 去勢시키고, 소련과의 관계를 惡化시키고, 中國的인 구조소와 여건을 제거하겠다는 관점에서 文化大革命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結果 다시금 中共의 經濟는 침체현상을 보여 3년이나 퇴보했고, 1968年의 GNP는 다시 970억\$로 강하되는 현상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0수년에 걸친 自力更生期를 분석하여 볼때, 理念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中國의 近代化는 늦어지고, 現實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近代化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共產化라는 과업이 부진되고, 理念運動을 강조할 경우, 다시금 경제는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 中共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共產化의 近代化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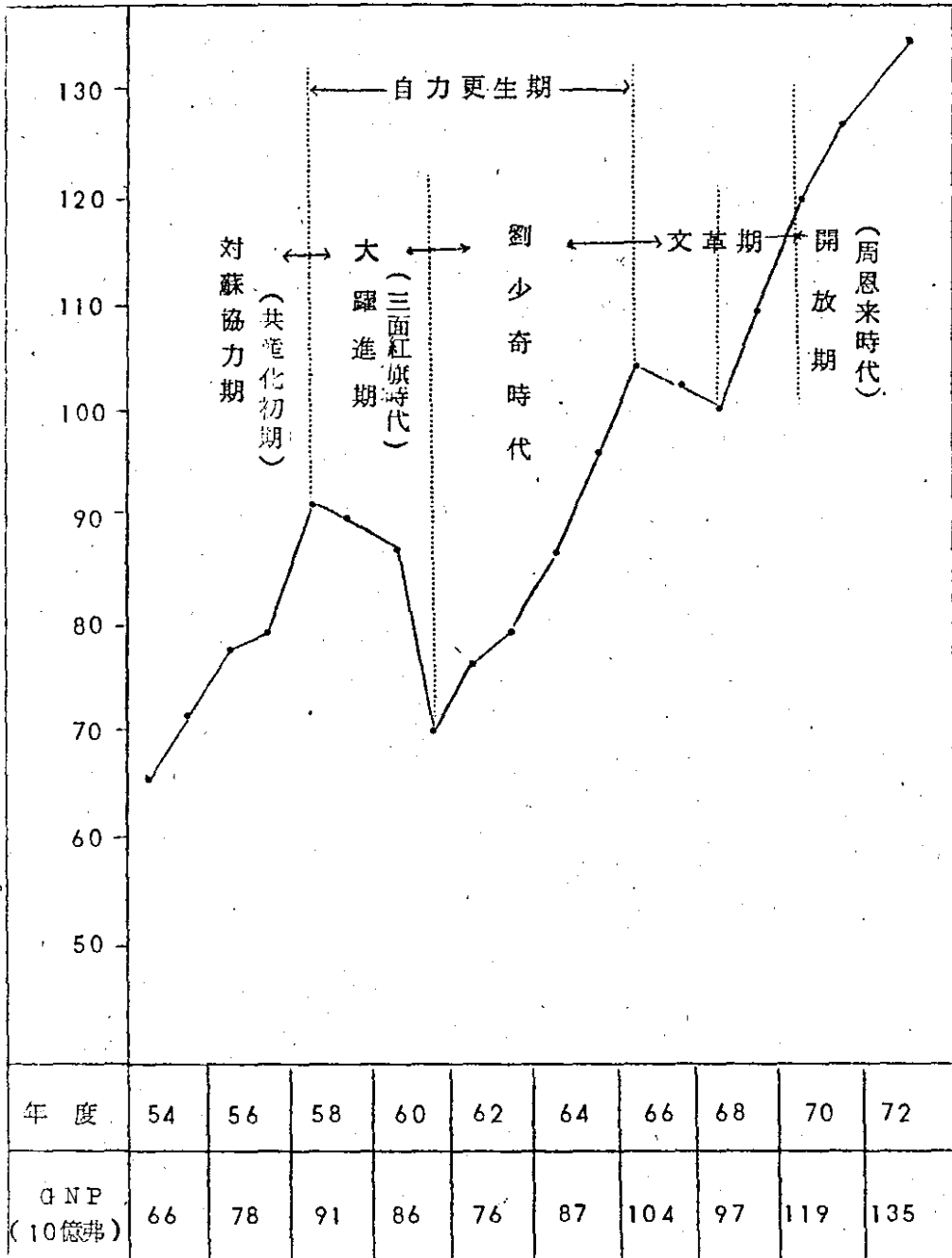
10수년간의 자력갱생의 추구는 中國의 近代化와 對蘇, 對美對決이라는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分野에서 中共을 방어 체제로 몰고갔던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만주

는 陷落되어도 北京은 무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령이 조직」으로 전 中共이 편성되는 기현상을 낳게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70年代에 들어서 中共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近代化를 수행할 수 없고, 더욱기 소련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西方側과 화해를 통해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고, 國家 近代化를 촉진하겠다는 政策轉換을 도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結果 開放化의 시도로, 다시금 中共 經濟는 安定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中 共 的 經 濟 發 展 推 移



다. 中共의 經濟發展 推移

이 도표는 지난 25年間 中共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1957년까지 이른바 対소協力期에 있어서는 GNP가 순조롭게 성장하였으나, 理念을 강조하던 大躍進期에는 GNP가 급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劉少奇時代에 들어 現實的인 改革政策이 추구되므로써 經濟는 점차 회복되었으나, 1966年 이후의 文化大革命은 다시 경제를 황폐시켰고 70年代에 들어 開放化가 추진되고 現實的인 政策이 수행되면서 國家 近代化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注目되는 바는 大体로 어느 國家이든 經濟成長은 時代가 흐름에 따라 상승추세를 보이는 것이 통례이나 지난 25년동안의 中共 經濟는 時代에 관계없이 지그자그형을 이루는 기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中共의 共產化 過程에서 제기된 理念과 現實간의 갈등의 幅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斗.交 遷 評 価

(1) 对蘇協力

- 安定成長 示現

(2) 自力更生

- 国家近代化不振
- 經濟沈滞化
- 復古的 歴史意識擡頭
- 毛沢東斗 逆天君主化 危機

(3) 对西方協力追求

- 自力更生拋棄
- 開放化的 近代化指向

라. 變 遷 評 価

이상과 같은 中共의 변천과정을 평가해 본다면 對蘇協力期에서의 中共經濟는 비교적 安定趨勢를 보였으나만 소련의 支援이 中斷되고 中共이 自力에 의한 國家 近代化라는 이론과 自力更生路線을 추구한 10수년간은 國家의 近代化는 부진되고, 經濟는 침체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大衆은 毛沢東의 支配體制에 壓迫을 느끼게되고, 復古的 歷史 意識이 대두되는가 하면 이같은 狀況의 惡化는 毛沢東 自身이 大衆에게 逆順君主로 비칠 위험성마저 대두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自力更生에 依한 中共의 近代化는 限界點에 봉착했기 때문에 마침내 中共은 이 노선을 포기하고 70年代에 들어 對西方 協力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開放化的 近代化의 모색은 지난 25년동안 國家 近代化를 위한 몸부림이 무위로 돌아간 것을 깨달은 中共 指導者들의 政策 轉換이라 보아지는 것입니다.

4. 中共의 現實

가. 對外開放 摸索

背景

(1) 進路 摸索 要素

- 自力更生 限界 認識 → 近代化 必要
- 對蘇 防禦 → 西方 側調停 期待

(2) 對外開放 路線 對立

區 分	林 彪	周 恩 來
蘇聯 對立 對立	非 敵對 矛盾	敵對 矛盾
西方 對立 關係	敵對 矛盾	非 敵對 矛盾
政 策 方 向	先 對蘇 和解 後 西方 資本 導入	先 西方 和解 對蘇 牽制 強化

※ 毛沢東：周恩来 立場 支持

- 10 全大會 以後 ← 林彪 沒落
對西方 開放 路線 決定

4. 中共의 現實

가. 對外開放摸索

그러면 對外開放化를 摸索하고 있는 오늘날 中共의 現實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自力更生路線의 결과는 中共을 自力로서는 國家近代化도 수행키 어렵고, 소련의 軍事的 威脅에도 대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소련의 軍事的 위협을 막으려면 獨自의인 軍事力에 西方側의 지원과 調整을 기대하는 方向에서 가능할 수 있고, 國家 近代化는 西方으로 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원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의 表現이 中共의 開放路線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開放化政策 論議에 있어 中共 指導者들 사이에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推理는 상당히 妥當性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特히 見解差를 현저히 들어낸 것은 林彪派와 周恩來派였던 것입니다. 林彪는 中共과 소련은 共히 社會主義 國家이기 때문에 먼저 中·소間에 和解를 하고 그 基盤위에서 西方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 것이 中共의 共產化的 近代化에 적합하다는 主張을 내세웠는가 하면, 周恩來는 소련과 中共은 이제 和解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으므로 먼저 西方과의 和解를 도모하고, 이를 活用하여 소련을 견제하는 힘을 기르자는 主張을 내세우므로써 이 두 政策路線은 에리하게 對立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은 林彪派와 周恩來派間의 政策對立에 對해 元來 反蘇감정이 강한 毛沢東이 周恩來의 立場을 지지했기때문에 林彪가 거세되었던 것입니다. 1973年 8月 10全大會에서 공식적으로 林彪의 숙청을 확인하고 反소노선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对西方 開放化

- (1) 國際社会 進出：UN 安保理事国 地位 獲得
对美和解，对日修交
- (2) 西方斗斗 交易扩大：72年→45億\$
73年→76.5億\$
(对西方 交易量 80→82%)
- (3) 西歐資本導入：73年→프렌트 62件
(60年代의 6倍 … 12億\$)
 - 華僑送金 - 年 3億5千万\$ (仏大使館)
- (4) 急速한 經濟成長
 - 食糧 - 2億5千万畧 (Current Scene)
(73年)
 - 肥料 - 9千4百万畧 (Current Scene)
(72年)
 - 原油 - 3千3百万畧 生産 (自由中国 經濟部)
(72年)
 - 工業成長率 - 15% 增加 (美国務省)
(72~73年)
- (5) 肅清은 官僚派大學 復帰

- 漸進的 安定回復 → 近代化 軌道進入
- 西方斗斗 關係改善 → 对蘇 牽制力 增大

자금이 가능하다고 하며, 化学肥料도 9천4백만톤을 생산해 거의
 주세로 간다면 年間 1천만톤 정도를 증산하게 되면, 식량의
 사정도 1973년에는 2억5천6백만톤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찾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빈곤과 기근에 고민하던 中共의 食糧
 대책으로 이러한 開放政策의 결과 오늘날의 中共 經濟는 활기를 띠
 際收支 改善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는 華僑들의 送金이 3억5천만弗에 달했으며, 이것은 中共의 國
 있습니다. 中共에 있는 프랑스大使館의 보고에 의하면 1973년에
 그리고 中共의 開放化와 함께 華僑로 부터의 送金도 급증하고
 6백에 해당하며, 그 규모도 12억弗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입된 프란트가 62건으로 이것은 60年代 전 기간중에 도입량의
 또한 西方으로 부터 資本과 技術의 도입도 급증하여 1973년에
 의 경우 18%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만 \$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共産國家와의 交易比率이 全体
 \$이었고, 1972年 56억5천만弗이었으나 1973년에는 76억5천
 이 현저히 擴大되고 있습니다. 中共의 貿易量은 1972年 45억
 면서 西方과의 開放化의 現況을 살펴보면 70年代에 들어 交易
 음니다.

면서 中共은 여러가지 部門에서 括目할만한 發展樣相을 보이고 있
 70年代에 들어 周恩來를 中心으로 하여 对西方開放化가 추진되

準自給 상태에 왔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原油도 1973年 5천만톤이 생산되었고 이 기간중에 工業 성장율은 약 15%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文革으로 피폐된 中共이 비교적 빨리 國家 近代化를 위한 건전한 자세를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중에서 文革期에 숙청되었던 實務官吏들이 대거 복귀되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對소관계에 있어서는 西方과의 關係를 개선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力量을 급속히 신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 批林批孔運動

背景

- (1) 對外開放：長短点内包
 - 長点 - 近代化 促進
 - 短点 - 体制變質，西歐化 憂慮
 - (2) 中共 指導部 意見对立
 - 官僚派 復歸 (周恩来) → 文革派 反挽
 - 西方資本浸透 → 長征派 警戒
 - 旧中国復活 → 毛沢東 憂慮
- ※ 旧中国 例示
- 政治 → 理念보다 現實重視
 - 經濟 → 西歐資本大學 導入
 - (地方：細胞 經濟化)
 - 社会 → 變遷思想 趨頭
 - (傳統中国思想)



- 毛沢東 立場
 - (1) 共產化와 近代化의 同時 追求
 - (2) 새로운 理念運動展開 必要

나. 批林批孔運動

그러면 이러한 中共의 開放化政策의 現實에 關聯해서 現在 中共 内部에서 展開되고 있는 批林批孔運動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批林批孔運動은 첫째 對外政策에 對한 問題點에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對外開放政策은 中共의 近代化를 促進시킨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對西方 關方政策에 依해 推進되는 近代化가 中共의 共產化를 變質시켜 結局에 가서는 共產化 方案이 西歐化的 方向을 걸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文化革命을 주도했던 이른바 文革派들은 周恩來가 文革時에 숙청되었던 수많은 突務官吏들을 다시금 復歸시켜 中共 行政府를 강악하고 있다는 點에 對해 反撓하고 있고, 또한 毛沢東과 함께 萬里長征에 參加했던 革命 元老들 사이에는 西方 資本이 급작히 대거 進出할때는 結局 中共은 19世紀 歷史를 재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憂慮를 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西方歐化的인 近代化는 그 過程에서 中共이 共產化的인 中共으로 發展치 않고 旧中國에로의 復舊로 發展할 것을 毛沢東은 憂慮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政權 成立後 繼續하여 毛沢東은 人民의 思想的 共產化를 위해 여러차례의 理念教育運動을 展開해와 오늘날 그 教育의 成果는 表面的으로는 社會主義 意識을 普及하였으나 精神的인 개조는 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結局 毛沢東은 蘇聯과의 對決, 國家 近代化를 促進키 爲해 西方의 支援을 望하고 있으나 西歐化的 近代化가 中共의 發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關係를 改善하면서도 中共의 共產主義運動을 자기 生前에 定着시키고, 자기의 死後에도 毛沢東 思想에 의해 통치될 中共의 方向을 設定하겠다는 立場에서 새로운 理念運動을 展開할 것이 要望되었던 것입니 다

現 況

性 格	对西欧開放化속의 共產化 追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批 林 - 对西欧開放化, 反蘇堅持○ 批 孔 - 旧中国復活抑制, 近代化 追求
展 開	(1) 第 1 段階 <ul style="list-style-type: none">○ 權力鬭争에 優先 - 旧中国復活抑制○ 指導部 - 批林批孔運動에 集結 (2) 第 2 段階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文革派, 長征派 提携 → 周恩来牽制○ 後繼問題意識 → 鬭争陽性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北京中心運動 → 地方에도 拡散○ 文革主導派 → 鬭争 煽動○ 贊反对立 가운데 流血事態 出現 (5万餘名 亡命, 5百名以上 殺傷)

그러므로 批林批孔運動은 한마디로 말해서 「對西方 開放化 속의 共產化 追求」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批林이란 의미는 開放化와 反소입장의 견지라 하겠고 批孔의 의미는 旧中国的 復活을 抑制하며 近代化를 追求한다는 觀點에 立脚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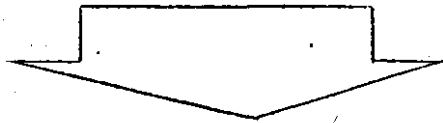
이 運動은 初期에는 中共 内部 派閥間의 權力鬭爭에 優先하여 旧中国的 要素의 除去라는 方向에서 展開되어, 이러한 視點은 比較的 순조롭게 進行되었으나, 最近에 이르러서는 文革派와 長征派들이 提携하여 開放化 政策을 主導하는 周恩来에 대한 견제를 도모하고, 특히 現 視點에서 後繼者 鬭爭을 벌일 境遇, 年老한 長征派와 周恩来 보다는 有利하다는 견지에서 文革派들은 이 運動을 점차 權力鬭爭으로 擴大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 北京을 中心으로 始作된 이 運動은 점차 地方으로 擴大되고 文革을 主導했던 派들이 繼續 이 運動을 煽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鬭爭은 現在 對反이 對立 되는 가운데 有血事態를 빚어내고 있는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展 望

客 觀 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对西欧開放 不可避○ 蘇聯의 軍事威脅 (防禦体制→攻擊体制)
內 部 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理念運動→國民抵抗○ 階級意識→親族意識○ 細胞經濟→地方分權 性助長
리 더 쉽	<ul style="list-style-type: none">○ 実務派→地位強化○ 毛沢東→象徵的 存在○ 強硬派→行政能力 缺如○ 長征派→年老



<ul style="list-style-type: none">○ 理念運動：週期的 反復予想○ 進路予想：西歐化的 變化指向 (近代化要求의 中国의 復元力)

그러면 과연 批林批孔運動은 開放化 政策이 具體化되는 現시점에서 어떻게 展開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客觀的 側面에서 볼때 中共이 開放化 政策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對內外的 여건에 있다는 것이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蘇聯의 軍事的 威脅의 性格이 最近에 들어 보다 攻擊的인 체제로 轉換되었다는 事實도 御約 要素中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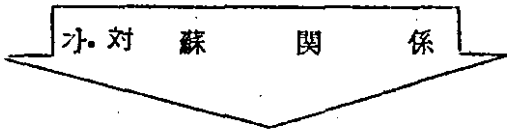
그리고 内部的으로도 中國 古來의 傳統思想을 按本塞源하겠다는 의도의 理念運動은 大衆의 反發을 받기 마련이고, 또한 過去 大躍進運動이나 文化革命等이 經濟的 퇴폐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理念運動의 強化에는 적잖은 問題를 제기시킬 것입니다.

리더쉽이라는 側面에서 볼때도 오늘의 毛沢東은 實權者로서라기 보다는 象徴的인 存在化 되고 있고, 長征派 역시 60才가 넘은 老人들이며, 文革派 또한 中共의 健全한 近代化를 組織해 나갈 조 직과 科學性 및 行政的 能力이 결여되어 있는 實情입니다. 이렇게 볼때 中共의 健全한 方向을 꾸려갈 수 있는 勢力은 周恩來와 劉少奇時 代에 있던 實務派들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 運動은 過去의 理念運動처럼 격렬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予想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理念運動은 中共에서 아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共產化의 追求라는 必要性 때문에 주기적으로 6~7年마다 展開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운동은 展開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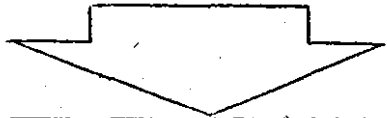
오늘의 開放化政策은 中共의 近代化라고 하는 要求에 依해 強力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側面에서 볼때 지난 25年間

中共에서 共產化運動이 繼續되었으나 中國의 復古思想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中國의 歷史를 돌이켜 볼때 元·淸이 異邦族으로 中原을 정복했지만 文化와 思想은 漢族에 동화되었으며, 仏教와 基督教이 中國의 思想에 흡수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中國의 歷史는 깊고 사상은 깊으며 文化와 傳統이 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中國은 強力한 復元力을 가지고 있는 怪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強力한 復元力과 近代化의 要求가 결합되기 때문에 中國의 共產化는 어려운 것이며 단기적 側面에서는 共產主義가 中國化되고 있지만 長期的으로는 中國이 共產主義를 삼켜버릴 可能性마저도 없지 않는 것입니다.

5. 影 響 判 斷



短期展望									
政 治 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全大會 이후 → 親蘇派 沒落 (王明死亡 1743) ○ 批林批孔運動 → 反蘇路線 強化 ○ 國境紛爭 → 敵對 心理戰展開 								
經 濟 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蘇經協 가능성 희박 ○ 명목상 무역 관계 지속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th> <th style="width: 20%;">日 本</th> <th style="width: 20%;">美 国</th> <th style="width: 20%;">蘇 聯</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中 共</td> <td>17 億 5 千 万 弗</td> <td>9 億 弗</td> <td>3 億 弗</td> </tr> </tbody> </table>		日 本	美 国	蘇 聯	中 共	17 億 5 千 万 弗	9 億 弗	3 億 弗
	日 本	美 国	蘇 聯						
中 共	17 億 5 千 万 弗	9 億 弗	3 億 弗						
軍 事 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裝備 中·蘇 大軍 대치 지속 ○ 蘇聯 → 방어 体制에서 攻擊 体制 轉換 ○ 中共 → 西方 資本 利用, 戰力 增強 追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蘇間의 和解可能性 희박 ○ 軍事·緊張 高潮 ○ 美國의 調整 → 全面戰 抑制 予見
--

5. 影 響 判 斷

가. 對 蘇 關 係

그러면 이러한 觀點에 立脚하여 中共이 美國과 蘇聯 및 韓半島에
펼 수 있는 政策方向을 診斷해보겠습니다.

對蘇關係는 短期的으로 볼때 林彪事件 이후 中共에서 친소파는 대
체로 몰락했고, 蘇聯이 보호하고 있던 王明(陳紹禹)도 금년 3월
에 死亡함으로써 中·蘇關係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人的 要素가
끊어진 狀態에 있습니다.

또한 軍事的인 側面에서 보아도 現在 美·蘇 兩國間에는 核裝備로
무장한 中·蘇 大軍이 約100萬 以上이 대치하고 있고, 최근 蘇聯의
極東軍이 방어체제에서 攻勢體制로 轉換되었다고 합니다. 蘇聯은 미사
일 部隊를 中央아시아軍에 신설하여 미사일 專門家인 투코프 將軍을
극동군 사령 관에 임명했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아 攻勢的인 立
場을 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反해 中共은 開放化로 西方으
로 부터의 支援을 받으면서 集中的으로 核開發을 하고 있고, 戰力을
增強하고 있기 때문에 中·蘇間에 和解의 可能性이 稀薄하고 軍事的
인 緊張狀態는 繼續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다만 이러한 軍事的 대치가 熱戰으로 發展하지 않는 것은 中·蘇
戰은 核戰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美國의 조정때문에 잠정
적으로 抑制되어 있는 狀態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長期展望

(1) 穩健派 得勢境遇 (毛死後)

- 对西方, 对蘇 和解可能

(2) 過激派 得勢境遇

- 对西方 对蘇關係 惡化 可能

(3) 穩健, 過激 集團指導 体制

- 反蘇堅持, 对西方關係 緊密化
- 对蘇關係→对立狀態 經統

中・蘇關係를 장기적인 側面에서 본다면 毛沢東의 死亡과 연계시켜야 될 것입니다. 毛沢東이 죽은 다음에 누가 政權을 잡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온건파가 得勢할 境遇, 과격파가 得勢할 境遇나 또는 온건파와 과격파 연합의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될 境遇等を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온건파가 得勢할 境遇에는 對西方 開放路線을 追求하는 現方向을 기반으로 하여, 國家近代化를 充실히 추구할 것이고, 近代化에 對한 合理的인 政策이 성과를 거둘 境遇, 窮極적으로 蘇聯과도 和解하는 立場을 취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境遇에는 中國의 共產化라는 概念의 변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理念을 강조하는 과격파가 得勢할 境遇에는 西方과의 關係나 蘇聯과의 關係를 惡化시킬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強・穩 兩派 聯合의 集團 指導體制가 형성될 境遇, 優先 反蘇立場을 堅持하면서 西方과의 關係는 改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視点에서 볼때 對蘇關係는 和解 보다는 對立狀態로 繼續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입니다.

4. 对美關係

短期展望

(1) 对美關係 改善 不可避

- 中国 近代化 促進
- 对蘇 戰力 強化
- 蘇聯의 核先制 攻撃 抑制

(2) 美・中共 对立要素 潜在

- 外交面 - 台湾問題
(美国 : 原則讓步, 中共 : 時期讓步)
- 内部面 - 批孔運動의 西万 警戒

- 理念上 - 葛藤要素 潜在
- 安保上 - 对美協力 追求
- 美国의 台湾關係 默認
- 駐韓 美軍役割 肯定

나. 對 美 關 係

다음으로 中共의 새로운 進路와 관련하여 對美關係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中共과 美國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宿命과 같은 것입니다. 우선 中共의 近代化와 소련의 위협의 견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개선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美, 中共間에 對立 要素는 많은 것입니다. 外交面에서 볼때 台灣問題는 중대한 對立要素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勿論 지난 1972年 美國과 中共은 台灣問題를 놓고, 「台灣은 中國 領土의 一部…」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美國은 原則面에서 양보를 했고, 中共은 台灣으로 부터 美國이 철수하는 시기, 다시 말하자면 美國의 台灣 양도 時期問題에 대해 양보를 함으로써 兩國간의 和解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 문제는 外交적으로 잠재적인 對立 要因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現在 전개되고 있는 批林批孔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中共 内部에는 아직도 西方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理念上 갈등요소의 잠재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安保의 필요성 때문에 對美協力은 계속 추구할 것이고, 美國의 台灣關係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묵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安保上의 要因이 강력히 부각될 경우에는 韓半島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의 役割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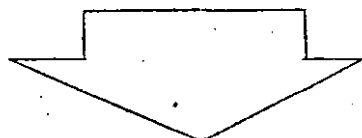
長期展望

(1) 美・中共 協力の 本格化 予想

- 中共 近代化の 加速化に 比例
- 理念的 対立要素 縮小

(2) 美の 中共協力 → 日本 凌駕 予想

- 中共の 対日 警戒化
- 70年代中盤 → 日本凌駕 予想



中共社会 近代化 主導役割 可能

長期的 側面에서 美·中共關係를 전망해 볼때,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美·中共간의 和解는 시간에 비례하여 擴大될 것으로 기대를 수 있습니다. 中共의 近代化의 정도에 비례해서 가속적으로 美·中共간의 協力は 오히려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對만문제에 對한 對立 요소도 점차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歷史적으로 볼때 美國과 中國間에는 그렇다할 적대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극적으로 韓國戰爭때문에 兩國은 對立되 왔지만 이제 國際情勢의 추이에 따라 平和무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中國의 歷史的인 사실에서 日本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을 9억那전에 있는 美·中共간의 貿易은 70年代 中期에는 日本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추세 밑에 美·中共간의 協력이 강화될 경우, 美國은 中國의 共産化의 邊 境에 王政的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对 韩 关 係

開放化以前

(1) 中共 北韓 密着

- 發展路線——→反帝反修正主義
- 發展方式——→自力更生 追求
- 統治方式——→唯一體制

(2) 中 蘇 对 立

- 地理的 隣接——→安保上 要衝

- 親 北 韓 一 邊 倒 政 策
- 对 韓 国 敵 对 視

다. 對 韓 半 島 關 係

끝으로 이같은 中共이 앞으로 韓半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中共이 自力更生을 추구하던 開放化 以前에 있어서는 北韓에 밀착되어왔습니다.

中共과 北韓은 發展路線에 있어 共히 反帝, 反修正主義 路線을 추구했고, 發展方式에서도 自力更生路線을 추구했으며, 統治方式도 一人獨裁 즉 唯一體制를 견지한 點에서도 中共과 北韓은 理念上 密着될 수 있는 要因이 있었으며 中·소對立 이후에는 地理的인 隣接性때문에 中共은 北韓을 安保上的 要衝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한마디로 親北韓 一辺倒政策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韓國에 對해서는 敵對的 立場을 늘 견지해왔던 것입니다.

開放化 以後

短期展望

(1) 中共，北韓間 对立要素 抬頭

○ 發展方式 ——> 自力更生 拋棄

○ 發展路線 ——> 對美接近

※ 北韓에 衝擊的事態

(2) 中共의 對北韓 撫摩 (蘇聯意識)

○ 中共의 對北韓 支援 形式化

(第 28 次 UN 總會 合議書)

○ 韓國의 存在 認定趨勢

그러나 中共의 開放化가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北韓과 中共間에는 몇가지 對立要素가 대두되고 있다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發展方式에 있어서 中共 自力更生路線이 퇴색되고 있고, 發展路線에 있어 對西方開放化 특히 北韓과 적대관계에 있는 美國과 接近하여 協力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등은 北韓에게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現在 中共은 소련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中·소對立 稱造에서 北韓은 安保上の 요충이란 點에 強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表面上으로는 中共이 계속 北韓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中共의 開放化가 구체화된 이후의 北韓에 對한 지원은 종전의 血盟的支援에서 形式化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窺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觀點에서 앞으로의 韓半島와 中共, 특히 한국과 中共은 궁극적으로는 關係改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韓國의 對中共關係改善 可能

○ 開放初期→親北韓立場堅持

(2) 6. 23 平和統一 外交政策 積極推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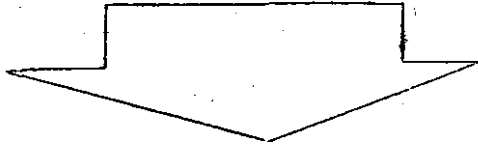
라. 結 論

開放化 초기에는 中共은 親北韓立場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中共의 對西方 開放化가 정착되고, 그 기틀 위에서 中共이 소련과 外交的, 軍事的으로 獨自的인 對決能力을 어느 程度 확보할 경우, 開放化의 傾向으로 中共의 共產主義運動은 점차 번질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한국과 中共關係는 對立要因이 점차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對韓關係 改善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中共과 소련에 對한 關係改善의 시도는 大統領閣下에서 淸명하신 平和統一 外交政策 兪旨에 合致되는 노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 韓国と 中共の 經濟發展方式 比較 (61-71)

区 分		韓 国	中 共
經濟發展方式		外資技術導入	自力更生追求
成 果	年成長率	10 %	1.7 %
	1人当 GNP	1.05 - 261 弗	103 - 125 弗



- 对西欧開放→中共近代化
- 中共の 變質 予想

北韓の 問題点

- 自力更生繼續追求 (發展鈍化—平和定着沮害)
- 中共影響→北韓變質予想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면서 中共의 발전과정과 韓國의 발전과정을 비교하여 보면 經濟發展面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61年부터 1971年까지 약 10年間的 한국과 中共간의 상황을 비교분석하여 본다면, 이기간 10년간에 한국은 朴大統領閣下의 명명하신 영도하에 外國으로 부터 資本과 技術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제발전方式을 추진하여 年10%의 성장율을 보였고, 1人당 GNP도 105弗에서 261弗로 상승하는 높은 성장추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中共의 1人당 GNP는, 이년 우리와 비슷한 103弗이었으나 中共은 外國과의 協助를 의면한채 自力更生路線을 추구한 결과 결국 年1.7%라는 저조한 經濟成長率로 나타났고 1人당 GNP도 125弗로 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적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結局 開發途上國은 理念과 體制에 관계없이 外國의 資本과 技術의 지원 없이는 正常的인 近代化가 不可能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사실을 우리보다 10년을 늦게야 깨달은 中國이 마지못해 西方과의 開放化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추측이 적중하다면 後進國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은 이것이 中共이건 또는 다른 國家이든 간에 그 實質이 不可避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北韓은 中共의 開放化 政策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北韓

은 현재까지도 自力更生路線을 고집, 계속 폐쇄하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發展은 둔화되고 이로 인해 결국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의한 統一問題의 해결에 있어서도 能動的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韓半島 情勢를 계속 緊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北韓의 태도에는 관계없이 北韓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中共의 對西方 開放化가 定着되고 西方과의 協力에 의한 國家 近代化가 추진된다면 그 여파가 必然的으로 北韓에까지도 미칠 것입니다. 6·23 宣言에 따라 中·蘇關係의 개선을 시도하고, 또한 北韓을 國際社會에 끌어내어 開放體制로 유도하려는 우리 政府의 政策方向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이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